

‘산학협력이 대학 전체로 확산되는 대학’ 전북대학교

우태규 | 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겸임교수



전북대학교는 지난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기술이전 수입료 부문에서 2위(10억1,798만 원)를 달성하였다. 또한 올해 10월 8일 발표된 ‘2012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지난해 전국 10위에 올랐던 교육여건 및 재정 분야에서 올해 전국 6위를 차지했다. 종합 순위에서도 지난 2007년 이후 5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국 Top 20, 거점국립대 3위에 랭크됐다.

도(道) 세가 약한 지역의 국립대로서, 전북도보다 월등히 경제규모가 높은 지역의

거점대학들을 제쳤다는 것은 대학의 연구 경쟁력이 높고,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북대의 산학협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올해 선정된 전국 51개 산학협력 선도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업비를 배정받은 것임을 의미한다.

1. LINC사업단 출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정부 지원에 의존한 산학협력이 아닌, 대학과 지역

(또는 기업)의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모델을 창출·확산하여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재 양성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전북대는 기존 대형 국책사업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인재양성센터) 및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단)을 기반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전북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하반기부터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을 위해 인사제도와 교육 시스템을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개편하고, 현장실습교육지원센터와 창업교육센터 설치 등에 박차를 가해 왔다. 또한 기존사업에서 운영해온 핵심연구인력 창출 및 산업체 맞춤형 인력창출에 대한 확대 운영 방안 및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아 사업에 선정되었다. 올해 선정된 전국 51개 대학 가운데 교과부로부터 가장 많은 사업비를 배정 받았고, 연간 48억 원씩 5년에 걸쳐 모두 250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우수 사업단으로 지난 7월 5일 출범식을 가졌다.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은 공과대학(17개 학부(과))을 중심으로 상과대학(2개 학부(과)), 자연과학대학(6개 학과), 농업생명과학

대학(7개 학과) 및 예술대 산업디자인학과 등이 참여하고 있어 산학협력이 대학 전체로 확산되고, 산학협력이 교육·연구와 더불어 대학의 주류 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전북대 LINC사업단은 기술혁신형 사업으로 학부생 9,000여 명 및 대학원생 800여 명 및 교원 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2.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 '우수사업'

전북대 LINC사업단의 대표 성공사례는 'One-Stop 기업지원센터'다. 기업이 대학과 쉽게 산학연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일 창구화하여,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우수사례를 육성하기위하여 설치되었다. 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 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대학 내 각 학과 및 기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교육 지원, 경영컨설팅, 공동연구 과제 발굴 및 자문 등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산학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가족회사'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센터에서는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참여전공 교수 1인이 '1인 1사 가정'으로 기업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One-Stop 기업지원센터에서는 LINC 사업단 홈페이지와 연동 가능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가족회사의 산학협력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학이 보유한 공동연구장비의 기업의 활용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장비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센터는 가족회사 재직자의 개인 역량강화 및 조직 내 갈등해소를 위하여 리더십, 인성교육, 품질/생산 관련 전문교육 등과 같은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학내개설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을 방문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대 LINC사업단의 또 하나의 우수사례는 ‘마이크로트랙(Micro-Track)’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의 취업을 제고하고,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를 제공한다. 가족회사에 학생이 4학년 1학기에 사전취업하고, 정규교과목, 전문가 교육, 현장실습 등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을 이수한 뒤, 동 기업에 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교육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일정규모의 학생들을 동일한 교육과정을 거쳐 해당 산업체에 취업하는 계약학과와는 다른 프로그램이다. 계약학과의 경우 초기에는 산업체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으로 계약학과의 정원을 모두 채용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마이크로트랙은 여러 산업체에서 꼭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학생 1, 2명을 사전에 선발하여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우수인재로 양성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역적으로 열약한 산업체 구조에도 매우 안성맞춤인 사업이다. 최근에는 전북대 LINC사업단을 주축으로 ‘전라북도 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인력양성과 산업체의 고급인력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북대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위해 현장실습과 캡스톤디자인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캡스톤디자인은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에 교육생을 참여시키는 종합설계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공기반, 기업기반, 다학제간 기반으로 운영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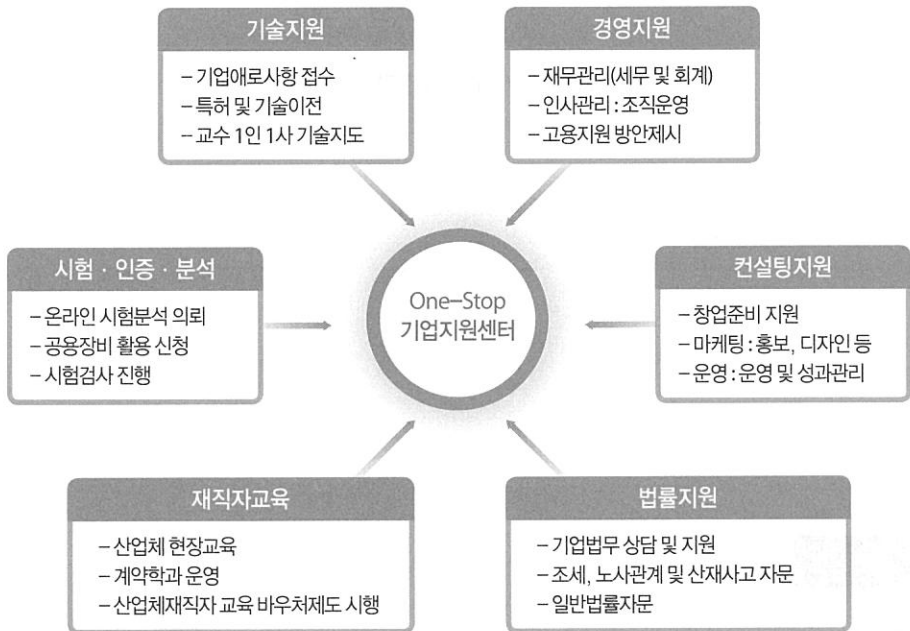
현장실습의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현장실습 참여학생 평균 대비 2012년 현장실습 참여자가 약 400% 이상 증가하였으며, 현장실습의 유형 또한 기존 한 가지에서 네 가지로 다변화하여 학생과 산업체의 연결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10월에 발표한 ‘2012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전북대는 지난해 32위에서 7위로 수직 상승했다.

3.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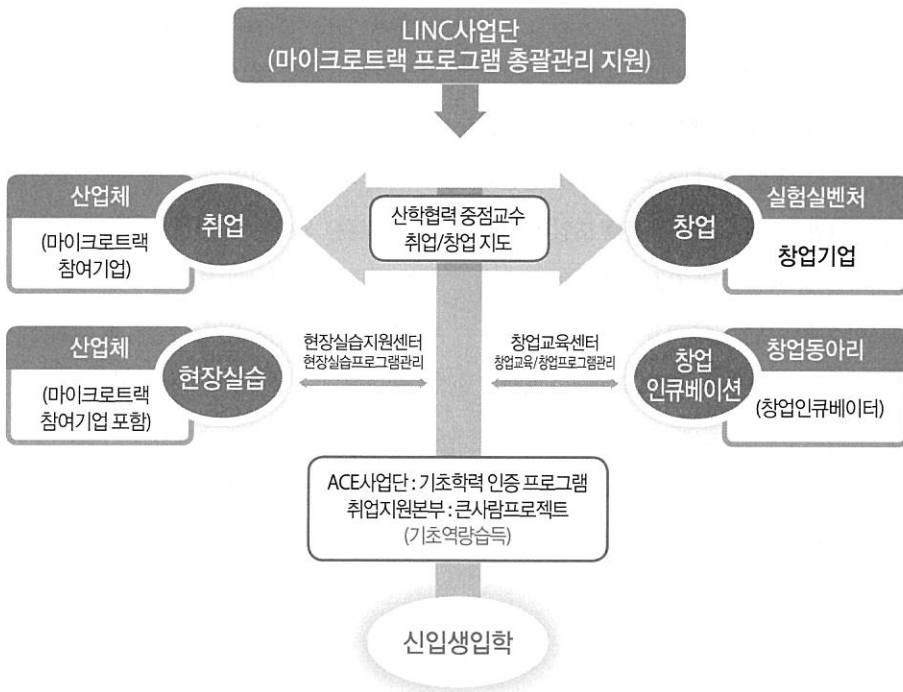
전북대의 특성화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이다. 2005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분야인 만큼 그동안 쌓아 놓은 노하우도 탄탄하다. 신재생에너지 교육인증제를 도입해 인력양성과 기업 지원 등에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교육인증제는 태양광과 풍력 분야의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으로 이루어진 특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3단계에 걸쳐 인증을 받게 된다. 이렇게 특성화 분야로 인증을 받게 되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LINC사업의 최

종 목표이다. 기업과의 긴밀한 연계도 결국은 그것을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을 잘 수행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라북도에 기업체 수가 적어,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10년 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해 나가겠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최종 목표는 1,500개 기업과 교류를 맺는 것이다. 연차별로 기업과의 교류를 넓혀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림 1 _ One-Stop 기업지원센터 운영 시스템]



[그림 2 _ 마이크로트랙 운영 시스템]

필자소개

우태규 | 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겸임교수

전북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 및 금속공학과 박사학위 취득하였다. LS엔트론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 총괄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LINC사업협

의회 실무위원회 호남권 대표, 호남광역시 산학협력 실무자 협의회 위원 및 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